

◇사육관리◇

사슴 사육 관리

성 유 석
본회연구위원회위원장

1. 겨울철 및 봄철 사슴사육관리

(가) 겨울철

사슴은 추운 겨울에도 추위를 이겨 낼수 있는 내한성 동물이지만 추위를 좋아하는 동물은 아니다.

계속 추위가 영하10°C이하로 떨어진다면 체기능 저하로 모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능의 저하로 전신이 위축되어 체기능 장애로 인하여 질병의 위험성을 야기시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아침저녁 가벼운 운동을 시켜 주는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열량이 많은 사료를 급여 시켜 체력을 증진시켜 주는것도 또한 좋은 방법이다.

특히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사슴과 어린 사슴 등은 추위를 이기지못해 체기능이 떨어져 호흡기질병이나 소화기 질병에 걸려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질병으로 인해 발육이 매우 좋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음을 볼수 있다.

또한 수사슴은 발정기에 있으므로 많은 정력을 소모하게 되므로 농후 사료를 많이 급여 하여 주어야 하는것이 체력을 보강시켜 주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다.

암사슴의 경우도 같이 임신 초기이므로 많은 영양분을 보충하여 주는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겠다.

특히 겨울철에는 암 수 구별없이 비타민이나 광물질이 많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사료에 섞어줌으로서 효과적인 영양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소화촉진제인, 생균소화제를 섞어 먹이는 것은 위기능 향진은 물론 질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어미와 새끼, 강한 사슴과 약한 사슴을 한 우리에 함께 사육한다면 약한 사슴과 새끼는 사료를 제대로 먹지 못하여 더욱더 약하게되며 특히 사료를 겨울철에 물에 버무려 줄 경우 사료가 얼어 이를 먹게되면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게 되므로 잘못하여 질병으로 폐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겨울철에는 사료를 물에 버무려 주지 않는것이 좋다.

또한 겨울철 사육장내의 급수 시설이 얼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약화된 사슴은 격리시설을 만들어 격리 사육 하도록 하며 보온에 철저한 주의를 하여야만 할것이다.

(나) 봄 철

봄철에 이르러 서서히 날씨가 풀리게 되면 사슴의 활동이 활발하여지고 식욕도 증가하여지며 모든것이 새로워 더욱더 많은 량의 사료를 필요로 하게된다.

이경우 더욱더 사슴의 영양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왜냐하면 영양상태가 좋으면 환모가 빨리되며 윤기있는 선명한 피부를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털이 군데군데 빠지거나 보기에 흉한 이상한 상태의 털갈이를

볼수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절기에 들어가면서 갑작스러운 환경변화와 과식은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므로 각별히 주의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때에 이르러 암 수 변화가 있는 계절이므로 수사슴의 경우 낙각이 되며 새로운 뿔이 생성되는 기간이므로 갑작스러운 행동이나 충격은 금물이며 암사슴의 경우 몸이 서서히 불어오므로 몸의 비대를 막기위해 많은 양의 농후사료의 급여는 서서히 줄여 주는 것이 좋다. 반면 가벼운 운동은 동물에게도 좋으나 무리한 운동으로 유산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유의하면 좋겠다.

2. 겨울철 및 봄철에 다발하는 질병

1) 장염 및 식체

원인: 과식이나 부폐사료 급여시.
사료의 변경이나 과도한 농후사료급여시.

증상: 원기가 없으며
반추작용이 약하거나 없음
연변이나 피모가 거칠어진다.

치료: 절식 시킨다
가벼운 운동을 시킨다
정장제를 투약 기생충 검사
항생제 설파제 및 수액을 겸용 투약
고창증을 유발시킬수 있으므로
수의사의 도움을 받는다.

2) 새끼사슴의 설사

원인: 급작스러운 기온변화
부적당한 사료급여
비위생적 축사및 전염병 감염
비타민 및 무기물 영양소 결핍시

증상: 색이 있는 설사를 하며
합병증을 동반하며 허탈상태유발
심하면 24-72시간내 폐사한다

치료: 깨끗한 장소에서의 보온이 절대
필요함
탈수상태의 수액을 공급해야한다
항생제 및 설파제

3) 폐 염

원인: 기온의 급변화 감기
영양상태 불량
축사내에서의 먼지 흡입

증상: 기침
호흡이 거칠고 활동이 미약
반추작용이 없고
좌우 목벽의 심한 호흡에 의한
선통

치료: 보온을 하여 주어야 하며
항생제 및 설파제의 투약
사내의 청소와 깨끗한 사료 및
음료수 공급

4) 피부염

원인: 부족한 영양 장애로 인한 대사장애
근친 번식된 사슴의 내분비계이상
기생충 감염

증상: 탈모현상이 나타남

소양감 말함
피부에 가피 형성
심하면 개선이형성 악취말함

치료: 영양공급에 의한 장기치료
세척하고 보호제로 도포한다
사육장내를 청결히 하여 준다
기타.

3. 사슴보호

(1) 겨울철 수사슴에 혈액을 채혈하는 경우
사슴 사육은 녹용을 위주로 사육하는 것이며, 혈액을 부산물로 얻어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 특유의 사육 방식입니다.

아울러 수사슴의 경우 녹용 채취시 계속 매년 다량의 혈액을 채혈 한다면 사슴 건강의 약화는 물론 녹용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하게되며 또한 사슴의 수명을 단축하게 되는 결과를 갖어오게 됩니다. 비근 한 예로 매년 많은 수의 꽃사슴 피해는 좋은 예라 보겠습니다. 더욱더 근자에 와서 겨울철에 사료의 질적저하에 또한, 번식기에 접하여 체기능이 약화된 상태에서 혈액을 채혈 이용 한다는 것은 더욱더 사슴의 건

강 약화는 물론 조기 노화를 불러 수명의 단축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오게 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유의 하셔서 비성수기에 체혈은 삼가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2) 다량의 혈액을 채취한 사슴의 문제점

(ㄱ) 체기능 저하로 악성빈혈을 유발하며 노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남.

(ㄴ) 저질의 녹용을 채취하게되며 상품으로 가치가 매우 떨어짐.

(ㄷ) 다량의 혈액을 채혈한 사슴의 경우 생식기계의 이상을 초래 하게되며 종족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짐을 강조합니다.

(ㄹ) 일부 축자는 사슴의 혈액은 1년내 모든 성분의 가치가 동일 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권장하는데, 녹용은 사슴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의 소산물이며 계절의 변화에 제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3) 질병

(ㄱ) 악성빈혈

(ㄴ) 피부염

(ㄷ) 미약 발정

※ 상기의 경우는 본인이 다량의 녹혈을 채혈하는 사슴농장의 사슴질병을 치료하였을때 얻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야생동물병원장-